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19

, 체계론, 그리스도의 인간성, 종속성, 무결점, 단일성 및 속성의 소통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체계적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인간성, 종속성, 무결점,
단일성 , 그리고 속성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과 체계적 그리스도론, 그리고 그의 인간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종속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흠잡을
데 없는 , 흠잡을 데 없는 논의입니다. 종속주의는 이 개념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 28절의 언어를
사용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가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예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물론, 의미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경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본 구절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전에 본 구절에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종속주의를 정말 명확히 하고 구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26,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그는 또한 아들에게도 자신 안에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육신을 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육신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영의 성육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구별합니다.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종이다. 숫자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등하다.

그들은 공존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 성경적 이야기를 위해, 구원을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4:4.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종속주의를 포함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구별해야 합니다.

본질적 종속주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본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이라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것처럼 본질 또는 존재의 종속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본질적 종속주의는 존재론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아들이 본질적 으로, 존재, 구성에서 아버지보다 열등하고 , 종속적이며, 열등하다고 확언합니다.

따라서 이 본질적인 종속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자유주의의 오류이며 컬트의 오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 종속주의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떼어놓기 때문에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개념화의 오류는 그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의 오류, 즉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을 은혜에서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사나 단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신뢰를 둔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신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는 자신을 종속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께 복종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종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종속입니다.

이것은 기능, 일, 역할의 종속입니다. 아들은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아들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성육신한 아들이로서의 역할에서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경제적 또는 기능적 종속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언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 보다 작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들의 겸손, 아들의 복종, 본질이나 본질적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구속 사역, 중재자로서의 아들의 역할,

아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종속에 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아들이 아버지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완벽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런 면에서 하인보다 더 큼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역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능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것은 역사적 단어이고, 경제적 또는 기능적 종속이며, 따라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기능적 종속주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흠잡을 데 없음, 흠잡을 데 없음 에 대한 논쟁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거의 다투는 것을 보았다. 흠잡을 데 없음은 죄를 뜻하는 라틴어가 *peccatum* 이라고 말한다 .

Peccatum . 흠잡을 데 없음은 육신의 아들이 죄를 지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흠잡을 데 없음은 육신의 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양측 모두 가치 있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루이스 버코프 는 체계적인 신학을 사용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한 세대의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기에 완전한 조사가 없지만,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밀어붙이면 저는 소수 의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2차적인 거래가 되도록, 몇 가지 문제가 명확하고 성경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고수한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해 누가 반론을 제기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루이스 버코프 만큼 보수적인

사람이 흠잡을 데 없음을 가르쳤고, 찰스 호지만큼 보수적인 사람이 선행 세대의 학생, 어쩌면 두 명에게 흠잡을 데 없음을 가르쳤듯이 . 버코프는 그리스도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지는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좋은 사람들이 흠잡을 데 없음을 가르칩니다. 제가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의 저자인 스코틀랜드 신학자 도널드 맥레오드가 흠잡을 데 없이 주장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다른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erkhof는 peccability 입니다 . Hodge는 peccability입니다 .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알겠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흠 없는 성품에 대해 형제 자매들에게, 그가 그때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지금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원의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입니다. 모든 성경을 믿는 신학자.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두 상태의 차이이다. 굴욕의 상태에서 그는 제한을 받았다. 그는 약하고 취약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승영의 상태에서 그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지상 영역에서 초월적인 천상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다시는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맞거나 고통받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오, 안돼.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따라 그의 적들을 파괴합니다. 그는 하늘과 지옥의 주님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아버지나 성령을 제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께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보편적 동의를 통해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동의. 고양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해. 그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의 사항은, 한 쪽이 이 부분에서 다른 쪽을 희생해서 점수를 얻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정말로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찰스 호지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유혹을 받았다면,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 말도 안 돼요. 그는 내면에 죄의 원리도, 성향도, 죄의 본성도 없고,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다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는 진정으로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흠이 없든 없든,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유혹이 진짜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했어요. 반면에 선한 사람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버코프 , 맥클라우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해요. 사실이에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이며, 그는 지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성 에 동의합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진실에 대해서요. 그가 유혹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결코 유혹을 받지 않았고,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신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그들은 그가 왜 죄를 지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그의 신성에 호소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지만, 제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는 진정으로 유혹을 받았고, 지금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말했지만, 저는 겸손하게,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믿어야 하는 무언가의 문제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편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저는 호지가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었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유혹에 대해 더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유혹은 주로 그가 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 중 한 사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저는 흠이 없다는 것이 그의 인간성을 희생하여 제가 믿는 그의 신성을 높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이에 대해 어떤 캠페인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편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제명하거나, 그들을 폄하하는 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신학 교수였던 Robert J. Dunzweiler 를 언급하겠습니다 . 그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첫째, 저는 한때 그에게 흠잡을 데 없는 것을 주장하는 논문을 썼고, 그가 얼마나 공정 한지 보여주기 위해 제 논문에 그는 "A, 좋은 일"이라고 썼습니다. 동의가 항상 일의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는 저와 의견이 달랐고, 당연히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을 바꾸었지만, 이미 알다시피 저는 흠잡을 데 없는 것을 콧방귀 뀌며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제가 거듭 강조해 온 진실과 함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유혹을 받았고, 지금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신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신의 계획에 따라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조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강조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를 쏘지 마세요.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의견이 다른 것은 완벽하게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연구하는 마지막 주요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의 선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성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기적을 연구했습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신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의 태중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성을 잉태하여 인간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을 지닌 신-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결과적 신성을 연구했고, 그의 아들로서의 존재에서 인격성의 연속성을 발견했습니다 .

그는 성육신 전의 아들로 성육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그의 아들됨과 달리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의 연속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인간성을 연구했고, 마지막으로 그의 단일 인격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한 인격입니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실제로 두 본성의 개인적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개인적, 또는 교부들의 말을 빌리자면, 위격적 결합으로 결합됩니다.

그것은 개인적 결합입니다. 즉, 그의 인간 본성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존재하는 인간 안에 초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없었지만,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비인격적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간성은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아의 자궁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별개의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그것은 말씀, 빛,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인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인격의 연속성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이고, 그는 성육신한 로고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성이 잉태되자마자, 영은 그것을 우리 주님의 신성에 합하여, 그는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서 신이자 인간이 됩니다.

신비롭다? 매우 그렇다. 하지만, 신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거하게 한 의미에서 비인격적인 인간성은 결코 없다. 아니, 아니.

예수가 잉태되기 전에도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것이므로 당신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마태에게 더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저하지 않고 결혼해야 할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일치에 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할 것은 속성의 전달, 라틴어로 *communicatio* 입니다. *idionatum*, 속성의 소통은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 개혁신파와 루터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그리스도, 즉 그 사람을 그의 신성에 상응하는 칭호로 언급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그에게 그의 인간성에 속하는

특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교부 교리의 기초입니다 . 교부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했고, 특성의 소통과 공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귀납을 해 보겠습니다. 결론과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혁파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존재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석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루터교인들은, 아니, 그것은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개혁파가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성경을 믿는 루터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서 실제로, 신성한 속성이 그의 신성한 본성에서 그의 인간 본성으로 진실되고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 공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의 인간성은 지금, 편재성이나 편재성의 신성한 속성을 공유합니다.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기는 성찬례입니다.

루터 자신은 신학적으로 후손들이 발전시킨 만큼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주님의 만찬에서 요소 안에,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 가톨릭의 의미에서 실제 변화 , 외부 요소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적 기적이 아닙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사용하여 우연과 본질을 구별했습니다.

사고는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단은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들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설교단, 설교단의 본질은 어떤 종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설교자나 교사가 성경을 놓을 수 있는 특정 높이에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설교주의 의 본질 또는 본질입니다 . 제가 단어를 만들 수 있다면, 맞죠? 그것이 설교단의 본질입니다.

색상: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그건 우연입니다. 정확한 모양, 그건 우연입니다. 정확한 높이,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 그건 모두 우연입니다.

하지만 설교단의 본질은, 그게 더 나은데, 특정한 높이, 성경을 놓을 수 있는 특정한 플랫폼이 있는 거죠, 맞죠? 물론, 저는 제가 하면서 이것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 겉모습은 우연일 뿐입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고 신은 미사 중에 종이 올리면서, 로마 교회의 성직을 받은 목사가 사제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는 성직을 받고 성직을 받을 권한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말하듯, 미사의 피가 없는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바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종이 올리면서, 사건은 그대로이지만, 본질, 바로 그 요소의 본성은 바뀝니다. 외형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인 전환적 실체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빵과 와인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기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기적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가 이 일을 라틴어로 '함께'에서 따온 '공재'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소 안에서,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루터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어떤 로마 가톨릭교도가 가르친 것만큼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존재하신다고 가르쳤다.

그는 어떻게 현존합니까? 기적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글썄요, 설명은 하나뿐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신성한 속성이 예수의 신성에서 그의 인성으로 옮겨졌으므로 이제 그의 인성은 동시에 모든 곳에 현존할 수 있고, 따라서 성만찬의 요소 안에,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개혁파의 견해를 따른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루터교도인 동료 개혁파 기독교인들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의 소통을 확증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청중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 친구를 사귀는 법,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한 노먼 빈센트 필의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강인한 사람이고, 청중을 여러 번 폭로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버지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평가를 보여 주셨고, 당신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그는 절름발이를 고친 일에 사도행전 3장 13절에 공로를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당신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빌라도 앞에서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증인입니다. 표현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저자는 신성한 칭호입니다, 맞죠? 사도나 천사를 두는 데 사용될 수 없죠, 맞죠? 당신과 저는 생명의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저자이며, 신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저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들은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오,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지만 인격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성육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구절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농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명사에 맞게 만드세요.

어, 당신은 삶의 저자를 숭배했습니다. 당신은 삶의 저자를 숭배했습니다. 둘은 잘 어울립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고 싶다면,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신성한 칭호, 신성한 동사.

인간의 직함, 인간의 동사. 하지만 여기에는 교차가 있습니다. 속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저자를 경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명의 저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칭호와 인간 동사, 인간적 속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신이라는 직함, 심지어 신이 생명의 저자라는 사실조차도 죽음과 필멸성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신이자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저자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저자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저자가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이 인격의 통일성을 확언한 이상한 방식입니다 . 같은 인격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문장에서 인간에게 참이고 신에게는 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인입니다.

이것은 속성의 소통입니다. 신성한 칭호, 생명의 저자, 인간적 특성, 필멸성, 유능함, 필멸자, 죽을 수 있음. 그는 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에는 본문적 문제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어느 본문이든 옳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주님의 교회든 결국에는 같은 것입니다.

둘 다 신의 칭호입니다. 사도행전 20:28.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다.

마치 프로토-장로교회와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들이 와서 밀레투스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를 만나서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엄숙한 말을 합니다.

28절. 조심하세요, 실례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신 모든 양 떼에게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교회는 그가 자신의 피로 얻은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위 고등 비평의 용어 규칙에 따라,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현재 목적, 우리의 현재 목적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맥락에서 하나님과 주님은 신성한 칭호이기 때문이죠, 맞죠? 이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명명된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얻었습니다. 신에게 피가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인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저속합니다.

역겹네요. 아니, 기억하세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이 인간과 접촉하는 인간으로부터 신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관념을 낳았고, 이제 신에게 피가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신은 피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땅에 계신 신은 피가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피는 구약의 희생적 맥락에서처럼, 여기서 예수의 희생을 말할 때, 그것은 그의 폭력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사고, 사서, 자신의 폭력적인 죽음, 자신의 피로 구속한 신 또는 주님의 교회: 신성한 칭호, 신 또는 주님.

인간적 특성, 다시 한 번,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필멸자입니다. 같은 문장에 결합되어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눈길을 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같은 사람을 신 또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 그는 피를 흘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속성의 소통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종속성, 무결함, 단일성 , 그리고 속성의 소통입니다.